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시동

호남대앞~광주공항 8km ...광주시, 환경부에 건의서 이르면 연내 국내 1호 도심 속 하천습지보호지역 지정

광주 광산구 도심에 자리 잡은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2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일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달라고 환경부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앞서 광산구는 광주시에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건의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정건의서를 받은 환경부가 습지보호지역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지정·고시하게 된다"며 "황룡강 장록습지 보호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연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다.

6.5%P 이상 나면 그 결과를 수용하지는 중재안이 제시됐다.

여론조사 결과 시민들은 거주지역, 성별, 연령대와 관계없이 10명 중 8명 이상이 습지 보호에 찬성표를 던졌다. 광주시가 최근 장록습지 인근 주민 500명, 광산구 주민 200명, 광산구 외 주민 300명 등 모두 1000명을 선정한 '황룡강 장록습지'를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데 귀중한 의견은 어떻느냐고 물었더니 찬성

한다는 답변이 80%를 넘은 것이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대해 반대를 하는 일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 설명회를 실시한 다음 최종적으로 지정건의를 요청했다.

광주시는 장록습지가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국내 첫 도심 속 국가습지보호지역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부 지원을 받아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훼손 지역 복원도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송용수 광주시 환경정책과장은 "장록습지 일대는 자연 생태가 잘 보존돼 경치가 좋고 주변에 관광 자원이 풍부한 만큼 생

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건전한 생태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립습지센터가 지난 2018년 3~12월 정밀조사한 결과 장록습지에는 육상곤충 320종, 식물플랑크톤 168종, 식물종 179종, 포유류 10종, 조류 72종, 양서파충류 7종, 어류 25종, 저서무척추동물 48종 등 모두 820종의 생물종 서식이 확인됐다. 천연기념물 수달(멸종위기종 1급), 삿, 새호리기, 흰목물떼새(이상 2급) 등 멸종위기 생물 4종도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1호 도심 속 하천습지보호지역 지정이 유력시되는 황룡강 장록습지 호남대 인근 모습. 흐르는 강물 양 옆에 녹색 습지가 펼쳐지고 주변에는 아파트 등 도심 건축물이 즐비해 있다. 환경부 국립습지센터가 지난 2018년 조사한 결과, 장록습지에는 천연기념물 수달을 비롯해 820종의 생물종 서식이 확인됐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광주시, AI 중심도시 조성 국비 발굴 나섰다

산·학·연·관 협의체 구성 시청서 22일 첫 회의 개최

광주시가 인공지능(AI)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국비 발굴에 나섰다.

광주시는 22일 시청 협의회실에서 자치구, 인공지능 연구기관, 유관기관, 대학, 산업체 등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국비 대응·발굴 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인공지능 국비 대응·발굴 협의체'는 5개 자치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주 테크노파크, 광주도시공사, 광주과학기술기술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광주과학기술원, ㈜넷은, ㈜아이버

메딕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협의체 구성은 광주시의 인공지능 집적단지 조성 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대돼 인프라 구축 등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치구 등과 협력해 인공지능 기반 국비사업을 발굴해 인공지능 중심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지난 9일 시·자치구 상생회의에서 국비사업 발굴에 자치구도 함께 참여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산·학·연·관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체는 2년의 임기동안 인공지능 국비사업 발굴을 위한 추진전략 및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중기 경영안정자금 2천억 지원

광주시 2년 거치 일시상환 2월10일부터 접수

광주시는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2000억원 규모의 2020년도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전업을 30% 이상인 제조업체와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체 등이다. 상반기 1400억원, 하반기 600억원 규모로 지원 예정이다.

지원 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업

제당 3억원 한도이며 프리(PRE)·명품 감소기업, 일자리우수기업, 광주형일자리기업, 우수중소기업업은 5억원까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중소기업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시비 68억원을 투입해 2~3%의 이차보전액을 지원한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2월 1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희망 중소기업은 경제고용진흥원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융자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등의 서류를 작성해 경제고용진흥원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전남도 설 연휴 온가족 즐길 여행지 24곳 추천

온천, 추억, 체험, 일출·일몰 등 4가지 테마별 가볼만한 곳

전남도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행사, 무료·할인관광지 등을 비롯해 테마별 가볼만한 주요 관광지 24곳을 추천했다.

설 연휴기간에 전남을 찾는 관광객, 귀성객들에게 주요 관광명소와 설날 세시풍속 체험, 관광지의 무료·할인 혜택 등을 다채롭게 소개했다.

먼저 테마별 추천 관광지는 온천, 추억, 체험, 일출·일몰 등 4가지 주제로 정해 특색 있는 관광지를 손쉽게 둘러볼 수 있도록 소개했다.

첫 번째 테마, '온천 여행'은 여유로운 힐링을 할 수 있는 구례 지리산온천랜드, 보성 울포해수욕장, 신안 엘도라도리조트, 완도 해조류스파랜드, 진도 썬비리조트, 화순 금호아쿠아리움 있다.

'온천 여행'은 일상을 탈출해 피로를 한 번에 날릴 수 있고, 어른과 아이가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단위 여행객들에게 안심마춤이다.

두 번째 테마, '추억 여행'은 온 가족이 함께 옛 추억과 역사속으로 떠나볼 수 있는 곡성 삼진강기차마을, 국립나주박물관, 담양 추억의 골목, 목포 근대역사관, 무안 밀리터리테마파크, 장성 필암서원이 있다. 세 번째 테마, '체험 여행'은 재미가 가득한 강진 가우도짚트랙, 광양 와인동굴, 목포 해상케이블카, 영암 국제자동차경주장, 해남 두륜산케이블카, 함평 양서파총류생태공원이 있다.

네 번째 테마, '일출·일몰 여행'은 고흥 남해해수욕장, 순천만습지, 여수 향일암, 영광 벅스해안도로, 장흥 정남진 전망

대, 진도 세방낙조 전망대가 있다. 다시 맞이한 새해의 희망을 설계하고 다짐할 수 있는 관광명소다.

설 당일 무료입장이 가능한 관광지에는 순천 낙안읍성, 담양 메타세쿼이아랜드, 가마골생태공원, 죽녹원, 한국대나무박물관, 소쇄원, 한국가사문학관 등이 있으며, 설 연휴기간 동안 무료 입장이 가능한 관광지는 강진 고려정자박물관, 다산박물관, 해남 공룡화석지, 땅끝전망대, 두륜미로파크, 우수영관광지, 고산유적지 등이 있다.

이광동 전남도 관광과장은 "설 연휴에 온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세시풍속 민속놀이와 전통문화행사가 도내 곳곳에서 마련돼 있다"며 "전남의 매력적인 관광명소를 둘러보고, 남도의 맛갈스런 음식 맛과 따뜻한 고향의 정취를 느끼면서 가족·친지와 함께 훈훈한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김치축제 총감독 공모

광주시는 제27회 광주세계김치축제 성공 개최를 위해 행사기획 경험이 있는 역량 있는 총감독을 공개모집한다.

총감독은 올해 축제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책임 기획, 행사장 공간 구성, 행사 운영 총괄 및 축제 콘텐츠 확장을 위한 외부 협력 관계 구축, 대외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2월5일까, 응모신청서는 2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접수한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를 참고하면 된다. 시정 생명농업과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김치축제는 광주김치타운 일원에서 10월에 개최한다. 대한민국 김치 경영대회를 비롯한 다양한 김치 전시, 김치와 우리 농식품 마케팅, 김치요리 체험 행사 등이 진행된다.

광주시, 설 명절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 강화

광주시는 설 연휴기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차단방역을 강화한다.

광주시는 연휴기간 24시간 가축방역상황실을 지속 운영하고, 축산농장, 축산관련 시설과 축산차량에 대한 일제소독과 방역 홍보활동을 강화해 추진한다.

특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을 위해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등에 대한

일제 휴업 및 소독을 설 연휴기간 전후(22, 29일)에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축산농가에 문자메시지, 홍보물 등으로 방역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구청, 광주축협 공동방제단 보유 소독차량 7대를 동원해 축산농가와 도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을 소독하고 의심가축 조기 검색을 위한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광주시, 설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

광주시는 설 연휴 저소득층 아동 결식 예방을 위해 '설 명절 아동급식 지원 계획'을 추진한다.

광주시는 연휴기간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 8429명이 끼니를 거르거나 굶지 않도록 도시락 배달업체 5곳과 급식카드 이

용업체인 일반음식점, 편의점, 마트 등 1200여 곳의 운영을 통해 급식을 지원한다.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지원이 필요한 아동이 발생하면 즉시 대처할 계획이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평생 어부바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사기(신용등급 등)를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기간 최대 5년 (기연연정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면제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